

그린에너지엑스포 4월7일 대구 개최

7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그린에너지엑스포가 4월7일부터 9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다.

그린에너지엑스포는 아시아 최대의 신·재생 에너지 전문 전시회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7회 엑스포에는 아시아 시장 진출을 노리는 다국적기업과 국내외 대기업, 중소기업 등이 참가해 최신제품과 신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총 22개국 320사가 1000여개 부스를 설치할 예정으로 독일과 유럽기업의 참가가 꾸준한 가운데 2010년에는 중국, 일본, 타이완, 미국기업의 참가가 눈에 띈다.

2009년 24사가 참가했던 중국은 2010년 45사가 참가 신청을 했고 일본과 미국도 6사에서 각각 9사와 13사로 늘었다. 처음 참가하는 타이완은 9사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신·재생 에너지산업의 선두주자 격인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규모로 참가한다. 2007년 이후 4년 연속이다.

국내에서는 현대중공업과 LG전자, 포스코파워, STX솔라, 대성그룹 등 대기업이 참가해 최신품과 신제품을 선보인다.

또 미리넷솔라와 신성홀딩스, 심포니에너지, 경동솔라, 케이피이, 삼광산전, 디솔라테크, 금풍에너지, 지엔알, 티앤솔라, 티엠테크, 쏘라플러스, 썬웨어, 엘에스티에너지, 에스피브이 등 그린에너지 분야 중견기업들도 대거 동참한다.

그린에너지엑스포는 2009년보다 20% 이상 늘어난 4만여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행사기간 중에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그린에너지 전문 세미나로 구성된 국제 그린에너지 컨퍼런스도 열린다.

<화학저널 2010/03/31>